

건강 칼럼

결핵약의 부작용

약과 음식의 차이점은 그 성질의 편향성에 있다. 일반적인 경우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의 상태가 변하지는 않는다.

반면 약은 인체에 특정 작용이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독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함으로써 얻는 효과와 이득이 부작용으로 인한 손상보다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1차 결핵약의 대표적 부작용 1차 약제는 그 부작용보다 결핵 치료효과가 더 뛰어난 약들이라 결핵



김이곤 구암한의원장

에 1차적으로 투여한다.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오심, 가려움증 등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차 약제는 더 많은 부작용과 장기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발생해도 1차 결핵 약을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게 좋다.

신경열, 발진,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있다. 리팜핀은 소변이나 땀, 눈물 등의 색깔이 옅은색으로 변하는 체액의 색깔변화와 오심 식욕부진 복통 등의 위장장애, 가려움증, 피부 발진, 간염, 혈소판 감소증, 용혈성 빈혈, 급성신부전, 발열, 오한, 두통, 권태감, 어지럼증 등이 있다. 피라진아미이드는 흉조, 광선과민증 반응, 관절통, 위장 장애, 간염, 가려움증, 피부 발진이 있고 에탐부톨은 시력저하, 색상구분 능력의 저하, 시야의 좁아짐 같은 증상의 시신경염과 피부염, 소양증, 위장장애,

두통, 권태감, 현기증, 관절통, 말초신경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

▲2차 약제의 사용 2차 약제는 1차 약제에 비해 부작용이 많고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만 더 이상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2차 약제로는 파스, 프로치온아미이드, 싸이클로세린, 가미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등이 있다.

항 결핵제의 부작용들은 일시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에서부터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약을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함부로 끊게 되면 내성균이 발생하면서 치료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상의 약들보다 효과는 떨어지면서 부작용은 더 많은 약을 처음보다 더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치료를 확실히 하는 게 좋다.

사설

코로나, 날마다 경계의 대상

전국적으로 하루 2백명이 확진되는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속출하고 있다. 서울 경기쪽은 예나 다를 것이 없이 날마다 두 자리 숫자의 환자 발생을 맡아 놓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도와 강원도와 경상남도 와 광주 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여러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때 날마다 깨어서 매순간 코로나를 경계해야겠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지난 주말에 4명이 새로 감염돼 176명을 보고하더니 곧바로 178명이 되고 또다시 1명이 더 불어나 어제 월요일에 누적 확진자가 179명이 되었다. 매일 강조해 말하고 있거니와 코로나가 지구 전체에 맹위를 떨치고 있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들의 수가 5천만 명을 훌쩍 넘었다. 지난 며칠 사이 431만 5천 명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57만 명에서 70만 명 꼴로 신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중에 미국이 가장 심각한데 날마다 18만에서 20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를 두고 그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안심해서는 안된다 고 날마다 강조해 당부하고 있어도 어떤 이들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우리 전북을 청정 지역이라고 믿고 있는 때문인지 코로나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학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보면 학생들도 그러고 있다.마스크만 착용하면 괜찮다고 여기는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모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들 강조해 말하거나 코로나는 날마다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에 대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니와 상대방이 건강해보여도 보건 상태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정말이지 이런 때는 늘 깨어서 코로나를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 주말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다들 세심하게 거리두기 실천의지를 다져야겠다.

지역 발전 발굴사업 반드시 추진돼야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발전 사업을 발굴했으면 반드시 추진되게 해야한다는 당부를 하고 싶다.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대 단했는데 어쩌면 일인지 많은 날이 지나도록 조용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 그 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북도가 공표했던 거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해 짚어볼 바가 있다. 발굴 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전북도의 역량 발휘가 있어야겠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북도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희망하며 발굴한 사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한 것도 없 지 않다. 이같은 지적은 사업 발굴을 책 잡자는 게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 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 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사업 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데 역부족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전북도를 지켜보면 뒷심 발휘가 늘 어렵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

구원이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구 체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사업발 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이 아 닌 수 없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의의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려 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획득하 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각각의 사업들을 분개 도에 올려놓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8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지역이 늘 예전 그대로 정체돼 있어서는 곤 란하다.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세월이 흘러도 예전과 별 반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 전북도 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성 세대들도 바라는 바는 지역의 발 전이다. 지역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도 안정될 터 이니 말이다. 거듭 당부하거니와 전북도의 사 업 발굴이 청사진 그리기로 끝나 버리면 안된다. 그 어떤 사업이고 발굴은 목적이 아니다. 전북도는 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더 힘차 게 뛰어어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21억 경주용 비둘기 '귀하신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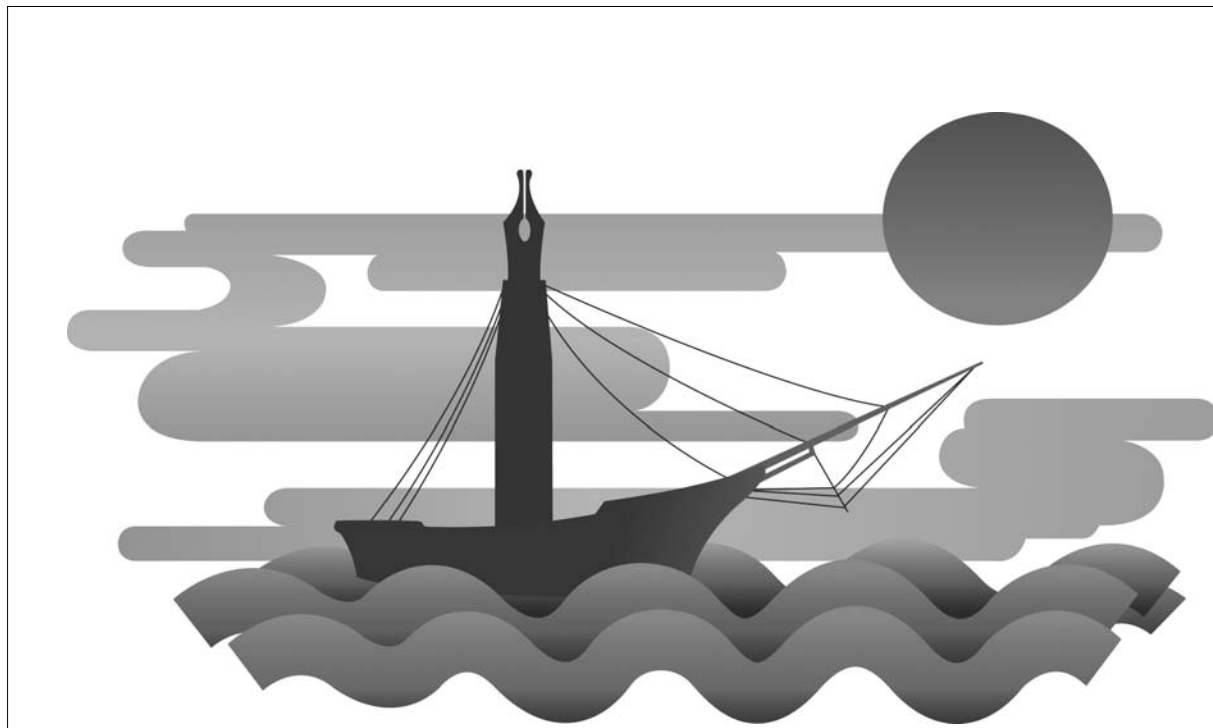
15일(현지시간) 벨기에 크네세라레(Knesselare)의 한 경주용 비둘기 경매소 직원이 경매가 끝난 후 '뉴 킴'이라는 두 실배기 입컷 비둘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 비둘기 경주 팬이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 '뉴 킴'을 160만 유로(한화 약 21억 원)에 사들이 이 분야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비둘기는 귀소 본능 때문에 통신이나 군사 목적으로 활용했으나 지금은 경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에티오피아인들, 내전 피해 수단으로



15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수단 동부 알 카디리프주에 모여들고 있다. 최근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인이 연방정부와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의 교전을 피해 수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